

사회의 심층을 추리하다

2024. 3. 21.(Thu) -
4. 18.(Thu)

일시 2024년 3월 21일(목)~4월 18일(목) 매주 목요일 15:00~17:00(5회)
장소 해돋이도서관 2층 해돋이홀
※ 4월 11일, 제4차 강연은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연
참석대상 시민, 교직원, 학생 (총 50명)
신청방법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www.yspubliclib.go.kr
접속 후 문화마당 → 문화행사 신청
접수일 2024년 3월 6일(수) 오전 10시부터
문의 해돋이도서관 ☎ 032-749-6952

폭력과 범죄로 사회의 병리 현상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둔
분석하고 묘사하는 추리소설만큼 사회적 병폐에 직면하는
장르도 없다. 추리소설은 다양한 내러티브로 망각되고 은폐
된 진실을 폭로하면서 독자에게 불편함과 카타르시스를 동
시에 안겨준다. 추리소설의 독자가 느끼는 섬뜩한 쾌감은
사회 심층을 향한 호기심을 깨우며 불편한 진실에 맞서는 용
기를 부르는 것이다. 청중은 각국의 추리소설에 관한 인문
학 특강을 들으며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의 비밀을 푸는 즐거
움을 얻을 수 있다.

3. 21.

아서 코난 도일
『주홍색 연구』
최혜림(인천대)

3. 28.

조르주 시몽
『수상한 라트비아인』
성귀수(번역가, 시인)

4. 4.

아쿠타가와 류노스케
『라쇼몬』
이경화(한국외대)

4. 11.

에거서 크리스티
『그리고 아무도 없었다』
황승현(인천대) ※ 비대면

4. 18.

김성종
『최후의 증인』
강용훈(인천대)